



봄비 내린 날 봄비가 내린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도로변에 활짝 핀 갯무꽃 꽃봉오리에 빗방울이 맺혀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주말까지 맑을 듯… 아침은 ‘쌀쌀’

제주지방은 비가 점차 개면서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방은 저기압 영향으로 22일 새벽부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22일 오후 4시30분 기준 한라산 진달래밭 174.0, 윗세오름 168.0, 영실 165.5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색달 112.5, 한남 110.5, 강정 73.5, 서귀포 57.0, 새별오름 65.5, 성산 51.2, 표선 68.0, 제주 8.7mm 등으로 지역

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3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순간 풍속 15m/s 이상의 강풍이 예보됐지만 점차 잦아들 것으로 기상청은 밝혔다. 또 23일까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바다 안개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23일부터 25일까지 오전 최저기온은 12~15℃로 떨어지며 비교적 쌀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은 23일 17~20℃, 24일 18~21℃로 예상된다. 위영식기자

버스요금 7월 인상 계획 ‘급제동’

물가대책위원회 어제 도 제출 ‘25% 인상안’ 논의 최악인 경기 침체 상황에 고민… 5월 재논의키로 도, 각계 ‘동결’ 요구 부담… 인상 시기 조정 검토

제주도가 11년 만에 추진하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각계에서 이어지는 버스요금 동결 요구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2일 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교통항공국이 제출한 버스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 보류했다. 물가대책위는 오는 5월쯤 다시 회의를 소집해 버스요금 인상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버스요금 인상안은 간선·지선 버스 기본요금(19세 이상 성인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7월 인상한 것을 마지막으로 11년간 버스요금을 동결해왔다. 제주도는 애초 2019년 버스요금을 인상하려 했지만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동결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제시된 버스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을 검토하다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당시에도 유보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돼 더 이상 인상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버

스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이번엔 요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 시기를 오는 7월로 계획하고, 지난 2월 공청회에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 절차를 차례로 밟아왔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상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다음 회의 때 안건을 다시 상정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심의에 참여한 물가대책위 모위원은 “경기가 최악인 현재 상황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주된 논의가 이어졌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인

상을 하더라도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도 인상 시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각해 ‘25%’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전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은 말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버스를 감차하고 요금까지 올리려 한다”며 인상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행정안전부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의회 제1회 추경안 놓고 막판 ‘진통’

각 상임위 72억여원 삭감… 오늘 본회의 상정 의결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막바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22일 오전부터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벌이고 있다. 예결특위는 지난 18일부터 통합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최종 관문인 계수조정에 돌입했지만 당일 오후 6시까지 결

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사전 심사를 마무리해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도의회에 따르면 6개 상임위가 예산을 삭감한 금액은 72억1300여만원에 이른다.

상임위별로 쓰임세 조정 금액은 행정자치위원회 3억6000여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5억7000여만원, 환경도시위원회 24억5000여만원, 문화관광위원회 10억6000여만원, 농수축경위원회 17억6000여만원

등이다.

이 중 비교적 삭감 폭이 큰 것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이다. 상임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기존 국가의료서비스나 건강보험 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낮고 유사·중복성이 크다며 재협의 판정을 내린 점을 토대로 총사업비 18억2000만원 중 10억3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8억6000만원으로 편성된 공공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예산

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 예결위로 넘겨졌다.

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공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은 개발주체인 농업부서가 납부해야 한다며 세출 예산으로 잡았지만 해당 상임위는 제주도가 납부해 세입에 반영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비자립로 확보장공사 사후 모니터링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한편 제1회 추경은 지난해 12월 말 도의회를 통과한 본예산 7조 5783억원보다 2194억원(2.9%) 증가한 7조 7977억원 규모다. 추경안에 대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 본회의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자원봉사, 등록은 느는데 실제 참여는 하락… 4면 / 국가유산 지정번호 폐지, 현장 엿박자… 5면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예부터 물이 귀했던 제주, 지하수 의존률 96%

위기의 지하수

오염원 증가, 난개발, 기후위기
⊕ 지하수오염, 지하수위 하강

지하수 보전·관리

농약·축산분뇨·하수 등 관리 강화
빗물·용천수 등 활용, 물 절약

제주의 생명 지하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지하수 보전·관리 캠페인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